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8월 26일(주일) 제1210호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힘찬 출발!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부흥집회,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등 행사 이어져

온누리공동체가 2018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오는 8월 28일 도곡, 동대문중랑, 동작, 영등포구로, 이촌 공동체를 시작으로 9월 16일 특별한 초대공동체까지 하반기 개강예배가 이어진다(표 참조).

2018년 하반기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9월 23일~25일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 10월 7일 창립 33주년 기념주일 및 CGNTV 정기후원 행사,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10월 17일~19일 부흥집회 행사가 있다.

11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맞춤 전도집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식, 장로장립식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는 기도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

9월 23~25일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Stand up'을 주제로 막 오른다.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몽골, 러시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Harvest 2018' 봉사자와 후원물품을 모집한다. 식당, 간식, 어린이사역, 사진영상, 의료, 숙소, 접수, 데코, 통역 등을 도와 줄 봉사자 100명과 빵(식빵, 크로와상, 빠니니용, 베이글),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훈제닭고기), 종이접시, 국그릇 등의 후원물품이 필요하다.

문의 - 물품: 070-8671-8092, - 봉사자: 010-3937-3927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내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전설비교체 전기공사

내일(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전설비교체 전기공사를 실시한다.

전기공사가 실시되는 동안 정전이 될 수 있다. 각 구역팀 및 예배 담당자들은 장비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의: 02-3215-3120

확대당회

일시: 9월 1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2018년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8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8일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8월 28일	동대문중랑	비전홀	오후 6시
8월 28일	이촌	시온홀	오후 6시
8월 30일	신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30일	용산	한동홀	오후 6시
8월 31일	여의도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31일	찬양	한동홀	오후 6시
8월 31일	관악금천	비전홀	오후 6시
8월 31일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9월 1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30분
9월 1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5시
9월 2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9월 3일	중충로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4일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4일	마포	한동홀	오후 6시
9월 4일	강서	시온홀	오후 6시
9월 6일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6일	OCC	한동홀	오후 6시
9월 6일	서대문	비전홀	오후 6시
9월 6일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9월 7일	이수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7일	가정사역	한동홀	오후 6시
9월 7일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9월 7일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9월 8일	광명	하안장로교회	오후 4시
9월 9일	성북	EM전시관	오후 12시 30분
9월 9일	김포	EM전시관	오후 3시 30분
9월 15일	한강	목상의집	오전 10시
9월 16일	특조	순정홀	오후 5시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8일	도곡	화평홀	오후 7시
9월 4일	CMN	드림홀	오후 7시
9월 4일	푸른누리	화평홀	오후 4시
9월 5일	서초A	드림홀	오후 7시
9월 5일	분당A	화평홀	오후 6시 30분
9월 6일	분당B	드림홀	오후 7시
9월 6일	경기A	화평홀	오후 7시
9월 7일	강남D	드림홀	오후 7시 30분
9월 7일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9월 7일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9월 9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3시 20분
9월 11일	송파	드림홀	오후 7시 30분
9월 11일	강남C	온유홀	오후 7시
9월 13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9월 14일	강남A	드림홀	오후 7시
9월 14일	강남B	온유홀	오후 7시
9월 14일	서초B	화평홀	오후 7시
9월 15일	서초D	드림홀	오후 5시

캠퍼스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부천	8월 26일	연합	분당	오후 7시
	9월 6일	서누리	경천홀	오후 8시
	9월 6일	북누리	비전홀	오후 8시
	9월 7일	동누리	비전홀	오후 8시
	9월 7일	남누리	경천홀	오후 8시
대전	9월 7일	연합	분당	오후 7시 30분
	9월 1일	B공동체	목상의 집	오후 5시
	9월 7일	C공동체	분당	오후 8시
남양주	9월 8일	A공동체	분당	오후 7시 30분
	9월 2일	연합	분당	오후 4시
인천	8월 31일	사랑	제너셈 5층	오후 7시 30분
	8월 31일	믿음	제너셈 7층	오후 7시 30분
	8월 31일	소망	제너셈 8층	오후 7시 30분
	9월 6일	말씀	분당	오후 8시
강동	9월 7일	믿음	분당	오후 8시
	8월 31일	동누리	필보른 홀	오후 8시
양지	8월 31일	서누리	박모세홀	오후 8시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니어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이 부모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교관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당일 접수하거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이다.

문의: 서빙고(02-3215-3263)

양재(02-570-7311)

예배_ 9월 2일부터 스페인어예배 드린다 5면

선교_ 남수단 난민사역 현장을 가다 6면

여름사역_ 그 마지막 이야기 7-11면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행과 패션, 문화의 중심지 강남. 대규모 오피스타운, 수많은 성형외과와 카페,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이곳에 이질적인 색깔의 장소가 있다. 바로 강남 유일의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이다. 바움(Baum)은 독일어로 ‘나무’라는 뜻이다.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은 ‘도심 속 음악의 숲’을 표방한다. 바쁘고 삭막한 강남 한복판에서 문화와 공연을 통해 나무와 숲이 주는 휴식과 여유를 즐기라는 의미다. 이 특별한 장소를 만든 주인공은 김동언 장로(강촌공동체)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 변화가이자 유흥가 강남에 크리스천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지난 2013년 사비를 털어 소극장을 열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직 문화! 오직 하나님!

강남 유일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 대표 김동언 장로

신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강남 유일의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이 있다. 입구부터 뭔가 다르다. 소극장으로 향하는 계단부터 고급 노송이 주는 향긋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잿빛 빌딩들과 확연히 구분됐다. 그것이 바로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에서 만난 김동언 장로는 끊임없이 문화를 이야기했다. 음악, 미술, 아티스트, 소극장 문화, 교회 문화, 나아가 문화선교까지 거침없었다. 3시간이나 되는 인터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였다.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문화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단숨에 알 수 있었다.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의 대표 김동언 장로의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그런 그가 사비를 털어 강남에 소극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문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가 잘 하고(인테리어) 좋아하는 것(문화)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곳은 강남 한복판이다. 임대료에 시설비, 운영비까지 비용이 만만찮게 들 텐데... 이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뜻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윤을 생각했으면 여기다 차라리 식당을 차렸겠죠. 감사하게도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웃음).”

100석 규모의 소극장이지만 우습게보면 안 된다. 시설만큼은 단연 최고다. 무대와 벽,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을 최고로 갖췄다. 수천 개의 못질 대신 전통방식을 고수했다.

“나무는 흡수와 반사를 같이 하는 재료예요. 공연장 재료로서는 최적이지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못질을 전혀 하지 않고 전통방식인 짜 맞추기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피아노와 스피커, 콘솔 믹서 등 음향시설과 악기도 최상의 사운드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들로 구비했습니다.”

이곳에서 공연했던 아티스트들도 일류들이다. 이 시대 최고의 기타리스트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함춘호를 비롯해 CCM 아티스트 한웅재 목사, 나무엔, 유명 밴드 세션들이 스페이스 바움에서 공연했다. 스페이스 바움에서



세상에 양질의 크리스천 문화를 전파하고자 소극장 ‘스페이스 바움’을 운영중인 김동언 장로.

막 오르는 공연 장르 또한 다양하다. 클래식, 재즈, CCM, 밴드 공연뿐만 아니라 북콘서트, 토크쇼 등 장르와 레퍼토리를 가리지 않는다.

근데 김 장로가 소극장을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대중문화를 하는 좋은 공연자, 좋은 무대, 좋은 공연장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와 공연장은 어떻게? 우리나라 찬양시역자들이 서는 무대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이 거의 없어요. 돈도 안 되고, 설 무대도 없으니 좋은 곡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티스트가 생겨나기 어려운 구조인거죠. 저는 무대가 없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 공연자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스페이스 바움에서 공연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 장로는 스페이스 바움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반드시 유료공연을 할 것을 다짐받는다.

“저는 아티스트들에게 유료공연을 권합니다. 지인들에게만 티켓을 알음알음 파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 티켓을 팔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최고의 연주와 공연을 하고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공짜 공연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과연 업체에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할까?

“몇 만원이나 하는 CCM 공연에 누가 올라 싶겠지만 좋은 연주자와 좋은 무대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옵니다. 대부분 매진됩니다.”

좋은 무대, 좋은 연주자, 좋은 음악(레퍼토리)만 있다면 유료공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이 적중했다. 대부분 매진이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문턱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강남 한복판에 소극장을 만들었다.

6대째 신앙인의 꿈...

문화사랑 가득한 김 장로는 신앙 또한 이름답다.

“제 아들까지 6대째 신앙입니다. 대대로 장로 집안이고요. 고조부, 증조부, 아버지, 제가 장로이고, 할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그의 증조부 김음록 장로는 ‘105인 사건’에 가담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정말 대단한 신앙내력을 가진 가문이다. 김 장로의 신앙이 굳건한 이유 또한 집안내력 때문이었거나 짐작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이니까지 또한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딱딱했다. ‘누구 장로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움아팠다. 집안의 신앙 이력은 길지 몰라도 그것이 그의 신앙은 아니었다. 그런 그의 신앙이 바뀐 것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아내 황유선 권사의 도움 덕분이었다. 황 권사는 온누

리교회 청년부 출신이다. 황 권사는 성령의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온누리교회로 옮길 것을 권했다.

“아내가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온누리교회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며 제 생일선물로 ‘아버지학교’ 티켓을 줬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려 하자 김 장로의 아버지가 반대했다. 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장로 직분을 받을 텐데 왜 다른 교회로 가냐며 반대하셨어요. 대령교회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모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더 빨리 장로가 되었겠지만, 김 장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로 직분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장로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또한 힘든 여정을 가는 주님의 길이니깐요.”

김 장로는 자녀교육 방법도 남달랐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문화를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문화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이나 문화 관람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니까 집에서까지 잔소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와 비교하는 대신 요셉의 꿈을 이야기해줬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줬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라고요.”

김 장로는 입만 열면 문화와 문화선교 이야기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화로 다가가 소통하려는 그가 참으로 귀해보였다. 김동언 장로를 생각하면 할수록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백범 김구 <나의 소원> 중).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경은 죄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악을 대적하는 것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찾아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선인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만 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과 공격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는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의 영에 대한 인식과 이해 결여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사탄의 지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영적 군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사이자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티모티 워너’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는 세례 의식에서 사탄의 세력을 거부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존재와 귀신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세례교육에 포함되어 있었고, 세례식에서도 서쪽(마귀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곳)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동쪽(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곳)을 향해서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의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섰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식에서 이러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티모티 워너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구의 세계관에서 악의 영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청교도인 존 번연의 책 <천로역정>과 <거룩한 전쟁(The Holy War)>은 영적 전쟁이 주제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책들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 이 책들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학으로만 여기면서 서구 사회가 영적 전쟁과 악의 실체에 대해 점점 무지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고 때로는 미신으로 여기면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한 채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은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빼앗는 사탄의 공격과 계략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엡 6:18).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Doubt)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처음 공격할 때도 사용한 것이 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창 3:1).

여기서 ‘정말’이라는 단어가 의심의 씨앗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의심을 무엇에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귀의 말을 의심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의심을 받아들였을 때 뒤에 따라오는 뱀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왜곡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의심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부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히 12:6).

고통은 때로 하나님 사랑의 채찍질일 수 있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의심하게 합니

다. 사탄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자 계략입니다.

욕망(Desire)과 속임수(Deception)

둘째, 욕망(Desire)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을 넘어뜨려 왔는데 그 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필요가 있고 선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욕구를 악한 욕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욕구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집착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눈을 가립니다. 성적 타락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지 눈을 가립니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도박중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지나치게 강렬한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욕망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으면 거기에는 분명 마귀의 계략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셋째, 속임수(Deception)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익숙한 생각으로 고정시킵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안경 렌즈와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이에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판

종착점은 천국, 동행자는 예수님

양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 개강

정말 멋진 여행을 떠난다. 다음 주일(9월 2일)부터 양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 (이하 회복여행)을 개강한다. 올해 4월 첫 선을 보인 회복여행은 예수님과 관계는 물론이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회복까지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다. 7월까지 진행된 전반기 회복여행에 참가한 성도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 이구동성으로 “감사와 기쁨, 관계의 회복을 얻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회복여행에서는 강의, 나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돕는 회복여행이다. 온전한 마음의 회복을 얻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차준구 장로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 강의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해요.”

회복여행을 다녀온 이후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 김찬미(가명) 성도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눈과 코가 빨개졌다. 김찬미 성도는 뇌질환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고 있다. 그녀는 10여 년 전만 해도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았다. 남편은 유명 대학 교수였고 자녀들을 유학까지 보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의 몸이 잘 안 움직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뇌질환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앞이 캄캄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을 부정하고만 싶었다. 절대로 믿

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서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나타났다. 염증과 가래가 많아지고 열이 수시로 올랐다. 한적하게 요양할 곳을 찾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왔다. 재작년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양지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김찬미 성도는 주변 성도들의 추천으로 회복여행에 참가했다. 회복여행에서 들은 강의는 그녀의 영적 나침반이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회복여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기도와 나눔이다. 말씀을 토대로 삶을 돌

아보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경험한 치유와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갔다.

“나의 아픔을 고백하다보니 어느새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오요”

이평화, 하기쁨(가명) 부부도 회복여행에 참가하면서 웃음을 되찾았다. 알게 모르게 끓어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부부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 일로, 저는 육아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이 대화만 하면 상처 주는 말로 끝나더라고요”

응어리진 마음은 예배를 드려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늘 답답했다. 그때 남편 지인의 초대로 참가한 회복여행에서 답답한 마음이 풀렸다.

“말씀을 듣는데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껏 남편의 가시만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육아휴직계를 낸 남편의 불안감이 결국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다. 육아휴직계를 내면서 사직을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 일하기로 결심

했다. 하기쁨 성도도 병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회복여행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온전히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회복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여행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소중한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회복을 선물하고 있다. 회복여행은 차준구 장로와 신덕신 목사 부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회복여행의 종착점은 천국이고, 동행자는 예수님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멋진 회복여행이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양지 온누리교회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예수님과 함께 회복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성도는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신덕신 목사(010-3714-0368)

하반기 회복모임 주제

날짜	주제
9/2	편견의 옷을 벗어라(요 1:43-51)
9/9	영적 목마름을 채워라(요 3:1-15)
9/16	공허함에 목이지 마라(요 4:1-30)
9/23	절망감에 빠지지 마라(요 5:1-15)
9/30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요 6:1-15)
10/7	죄책감에서의 해방(요 8:1-11)
10/21	체념을 극복하라(요 9:1-12)
10/28	헌신적 사랑을 회복하라(요 12:1-8)
11/4	성감을 배우라(요 13:1-17)
11/11	서로 사랑하라(요 13:31-35)
11/18	회개와 일치를 이루라(요 15:1-10)
11/25	사명을 품어라(요 21:15-19)

사역칼럼



차준구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담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었다. 마라에서 쓴물로 불평했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광야생활 40년이 지난 후에도 므리바에서 물이 없으며 원망했다. 40년 전이나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

게 되었다.

우리라면 40년 동안 속을 썩이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고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중보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진 분이다.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신 1:30)이시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하다.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신 1:31)이시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걸어 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이 덤덤하게 들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역경을 겪은 이후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과연 그들의 능력이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낼 수 없었을 것이다. 각 사람마다 사연은 달라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안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안아줄 수 없다. 아내가 류마티스 질병으로 엄청 고통 받고 있을 때였다. 통증이 얼마나 심

했던지 스스로 안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그 통증을 참고 견디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를 미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핵심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해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좌절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9월 2일부터 스페인어예배 드린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도곡교육관 온유홀

9월 2일부터 스페인어예배를 드린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네이라 목사가 담당한다.

스페인어예배는 ‘스페인어권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사람들의 언어, 문화, 정서, 기독교 역사 등을 가르쳐주고, 맞춤형 선교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스페인어권 선교의 전략기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어권 선교의 필요성

스페인과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쓴다.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다. 스페인 인구의 77%, 남아메리카 인구의 75.6%가 가톨릭 신자인 반면 개신교 비율은 각각 0.4%, 10.7%에 불과하다. 그만큼 스페인어권 선교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대한민국 선교사는 스페인어권 선교에 안성맞춤이다. 스페인어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한류가 있다. ‘K-POP’의 영향으로 스페인어권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스페인어권 외국인이 약 5,473명이나 된다. 2012년(약 3,725명)과 비교했을 때 1.5배나 증가했다. 바로 지금이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언어, 문화, 정서, 특징, 기독교 역사 등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 다가가야 성공적인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어권 나라와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기에 스페인어예배보다 좋은 곳이 없다. 스페인어예배공동체 창립이 무엇보다 기쁘고 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스페인어예배는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전문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있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스페인어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소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페인어예배가 탄생하기까지

스페인어예배는 기도모임으로부터 태동했다. 올해 1월 스페인어를 담당하게 될 네이라 목사와 그 가족들이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기도모임을 했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성도들이 자발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해 함께 기도한 사람들.

적으로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기도모임 장소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한 교회 직원이 빈 장소를 알아봐줬고,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에 참여를 원한다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역자들이 늘어날수록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꿈꾸는 네이라 목사의 갈망도 커졌다.

그즈음 이주민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온누리 M미션 담당 노규석 목사와 연락이 닿았다. 네이라 목사는 한달음에 달려가 스페인어예배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소개했다. 노규석 목사도 깊이 공감하고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해 동역하기로 약속했다. 스페인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두 달 정도 지났을까. 노규석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스페인어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그토록 소망했던 네이라 목사는 뿔뿔이 기뻐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스페인어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또한 한국을 넘어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도 스페인어예배공동체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자체가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네이라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 말씀, 기도에 집중할 생각이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회비전이다.

전도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구는 한국 문화이다. 한류가 스페인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지금 한국은 스페인어권을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또한 스페인어예배는 이단에 빠져있거나 현혹당하고 있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스페인어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단들이 이를 이용해서 포교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스페인어예배공동체를 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동역자를 찾습니다

스페인어예배가 생기기 기대하고 있던 성도들은 지금 한껏 부풀어 있다. 스페인어예배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브라이언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브라이언은 스페인어예배가 첫 선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스페인어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들을 온누리교회로 안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브라이언과 함께 스페인어예배를 섬겨줄 봉사자를 찾고 있다. 지금 스페인어예배는 네이라 목사와 가족, 성도 7명이 힘을 합쳐 섬기고 있다. 찬양인도부터 설교까지 모두 네이라 목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건반, 드럼 등을 연주할 수 있는 찬양팀, 음향팀, 전도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문의: 010-4924-270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네이라 목사를 소개합니다



스페인어예배를 담당하는 네이라 목사는 페루사람이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왔다가 예수 믿고 탄압이 됐다. 네이라 목사에겐 한국에 거주하는 페루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 친구가 네이라 목사에겐 스페인어예배 통역을 부탁하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가톨릭 신자에게 기독교 예배 통역을 부탁했으니 거부감이 있을 법도 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전도 열정이 대단했다. 네이라 목사가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네이라 목사가 두 손을 들었다. 그렇게 부친 천산중앙교회 스페인어예배 통역을 하면서 난생 처음 복음을 들었다. 어느새 복음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 이듬해 세례를 받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2000년에는 무작정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선교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2년 뒤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인 아내와 가정을 꾸렸다. 2004년부터는 평신도 사역자로 섬겼다. 서울 강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고, 일산 총정교회 영어예배도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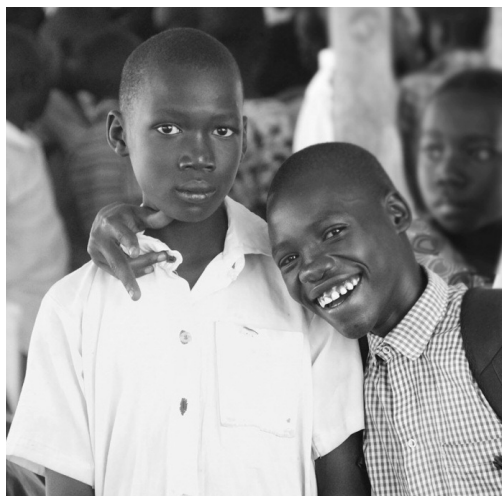
난민사역 현장을 가다

그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난민들에게 준 선물



새로 건축된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좌),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의 학생들(우).



2013년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수단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남수단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의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었다. 남수단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남수단 국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새 터전을 찾아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새 삶을 찾아 떠난 남수단 난민이 260만 명이 넘는다. 남수단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다. 그중에서 약 138만 명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착했다. 남수단 접경 지역에 난민촌을 형성하고 눈물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고 있었다. 남수단 난민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 안타까운 이웃들에게 NGO 더멋진세상이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줬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줬다.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복음이었다.

난민촌 중에서도 소외된 ‘부드리 난민촌’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총 18개의 난민촌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18개의 난민촌 중에서 모요 지방에 위치한 ‘부드리 난민촌’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난민촌들은 여러 NGO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부드리 난민촌은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드리 난민촌은 교통이 매우 열악하다.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역이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부터 남수단 국경까지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동이 편리한데 국경 부근에 있는 ‘아티악’이라는 도시에서 ‘아주마니’ 지역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드리 난민촌은 그곳에서도 차로 한참 달리다 페리(수송선의 일종)로 갈아타고 나일강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최악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른 NGO 단체들로부터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부드리 난민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결같은 달려왔다. 부드리 난민촌을 돕겠다고 한 것 자체가 특별한 시도였다.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을 받은 부드리 난민촌은 빠르게 변화했다. 주민들은 NGO 더멋진세상이 파준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었다. 식수뿐만 아니라 빨래, 요리, 가축용수, 농업용수로도 사용되고 있다.

부드리 난민촌 주민 포니씨는 “NGO 더멋진세상이 우물을 파준 덕분에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부드리 난민촌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드리 난민촌에는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이 있다. 학생 2천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남수단 난민들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녀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남수단 난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2017년부터 임시천막 학교 5동을 설치해줬다.

13살 소년 바니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어준 임시천막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임시천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면 수업을 받지 못 했어요. 하지만 임시천막 학교가 지어지고 난 뒤에는 비가 와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변호사가 될 거예요”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 준공식

그런데 임시천막 학교는 오래가지 않아 망가지기 시작했다. 찢기고 해지고 더 이상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돌풍과 관리 부실이 문제였다. 지붕만 남았을 뿐 천막 옆면은 뽕 뚫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늘어서 4개 클래스는 나무 밑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러한 환경에서 난민촌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올해 초부터 벽돌로 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완공을 코앞에 둔 학교는 교실 14개와 화장실을 갖췄다.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 학생들은 더 이상 답답하고 지저분한 천막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9일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 준공식이 있었다. 준공식에는 김창욱 사무총장(NGO 더멋진세상), 최경주 이사장(최경주 재단), 정찬의 실행위원장(NGO 더멋진세상), 조장석 홍보대사(NGO 더멋진세상), 최진혁 코디네이터(NGO 더멋진세상), 정봉진, 손미애 선교사 부부(NGO 더멋진세상), 강성민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함께 했다. 교육전문 NGO 단체 ‘WINDLE INTERNATIONAL UGANDA(이하 WIU)’ 관계자와 UNHCR(유엔 난민기구) 관할 대표도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 단체들과 함께 부드리 난민촌을 돕고 있다. 같은 NGO 단체조차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난민촌인 부드리 난민촌에서 선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을 칭찬했다. 준공식에서 김창욱 사무총장이 축하했다. 김 사무총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이 무사히 완공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있는 최경주 이사장(최경주 재단)은 “학교가 무사히 완공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있었던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세워준 학교는 남수단 난민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16세 소녀 산타 조르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내전을 피해 이곳에 올 때만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 학교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는데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요.”

산타 조르가 의사를 꿈꾸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산타 조르의 오빠가 몇 해 전 걸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발을 절뚝거리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걸을 수 없게 됐다.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이었다. 산타 조르는 오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교육만이 산타 조르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낙담했었다. 그런데 NGO 더멋진세상이 산타 조르가 계속 꿈을 꿀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줬다. 산타는 열은 미소를 띠며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 인사를 했다.

“더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NGO 더멋진세상이 베풀어 준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학교건축은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학부모 대표 사무엘(42)씨는 학교가 세워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 교장은 “주변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들(NGO 더멋진세상)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NGO 더멋진세상은 부드리 난민촌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줬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장 정봉진, 손미애 선교사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회비를 지원하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있다. 정봉진, 손미애 선교사 부부의 헌신과 사랑이 부드리 난민촌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칭찬이 자자하다. 강성민 선교사도 작년 말부터 부드리 난민촌을 섬기고 있다.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드리 난민촌 축구팀은 지난달 모요 지방에서 개최한 경기에서 준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부드리 난민촌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와 MOU(상호 업무협약)를 체결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 지원금과 자체 자금 6천 2백 50만 원으로 복합급수시설(벚꽃 저장 및 정수 장치), 급식프로그램, 교사교육세미나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서빙고공동체_아프리카 A국

나도 이곳을 마음에 품었다



서빙고공동체가 기독교로 회심한 현지인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오기호 집사
(서빙고공동체)

올해 초 순장리더십 수련회에서 아프리카 A국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5월부터는 박종길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며 바울의 123차 전도여행 지도를 그리고 행적을 기록했다. 아웃리치를 위한 공동체 소속 12명은 3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면서 아웃리치를 기도로 준비해 나갔다.

아프리카 A국까지 가는 여정은 길었다. 장장 3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끝에 A국에 도착했는데 D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 숙소에 입실할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우리 팀은 3개조로 나누어 선교지역으로 향했다. 선교사님과 신, 의, 인 세 자녀가 통역사로 우리와 동행했다.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AT 산책을 굽이굽이 넘어갈 때를 잊지 못한다. 양떼들과 양치기, 아르간나무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항구 쪽은 선선했는데 내륙 산악으로 접어들니 40도가 훌쩍 넘었다. 냉방시설이 없는 낡은 차로 이동하려니 숨이 턱턱 막혔다. 깎아지른 절벽이 내려 보이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지나갈 때는 아찔했다. 차에서 내려서 산마을 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한 주민이 사는 집으로 안내 받았다. 그 산마을의 B쪽 집에서 목사님께서 간증을 포함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다. 문맹율이 높은 B쪽은 순박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에는 이곳에서 B쪽 언어로 제작한 영화 '예수'를 마당에서 상영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의 섬김을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품고 애절한 마음으로 노력했는지가 느껴졌다.

둘째 날에는 M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A와 S 부부를 만났는데 그 시간이 정말 귀했다. 듣고 보니 2010년 이곳에서 외국인 선교사 150명이 추방되는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

람들에 의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정교회가 5개나 세워졌고 개종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현재 아프리카 A국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회의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종교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M 지역에서는 2년에 1명 정도 회심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 현지인 사역자 부부는 사도행전처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다. A를 비롯한 9명이 그곳 책임자들에게 요청한 서류가 있다. 교회 설립에 자유를 주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묘지를 따로 만들어 주고, 결혼할 때 무하메드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 덕분에 압박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가 무슬림이 아니라는 소문 때문에 쫓겨났다고 한다. M 가정교회와 두 부부의 기도제목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믿음을 위해 쫓겨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구해지고, 쫓겨난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시장의 상점에도 방문했다.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시장 상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셨고, 상점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기독교로 회심한 현지인 C의 간증을 들었다. C는 성경을 읽으며 평안함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공동체 권사님이 C를 위해 기도해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느낀 C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다.

목사님은 마지막 날 저녁 성만찬 시간에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A성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처럼 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피폐된 이곳을 다시 보수하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기를 바라면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도 이곳을 마음에 품었다.

노원공동체_전남 곡성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다



노원공동체가 고추밭 일손을 도와드리고 독거노인의 집을 도배해드렸다.

김인옥 성도
(노원공동체)

노원공동체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남 곡성에 있는 오산교회로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내게는 첫 아웃리치였기에 초등학교 때 소풍가기 전날 밤처럼 무척 설레었다. 무엇보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성령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성령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었다. 곡성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팀원들과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데 모두가 성령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오산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먼저 분당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상담하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는 안 믿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를 해 드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어르신들께는 기도제목을 여쭙고 기도해드렸다. 이러한 사역이 처음이어서 쉽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일반 진료뿐 아니라 한방 진료도 했다. 어르신들의 아픈 곳에 침을 놓고 파스를 붙여드렸다. 노원공동체 소속 어린이들의 섬김도 빛났다. 어린이들은 어르신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드렸다. 어르신들은 예쁘게 칠해진 손톱을 보면서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전도팀장님과 권사님 한 분과 함께 마을 회관에 가서 전도했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어르신들께 파스와 요구르트를 나눠드리고 안부를 여쭙보면서 복음을 전했다.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또한 교회에서 무료진료와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그 덕분에 회관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파마도 하고, 침과 영양제도 맞았다. 그 어르신들이 이틀 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다.

늦은 오후에는 동네 고추밭에 가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다. 덥고 가물었지만 다행히 새빨간 고추가 많이 달려 있었다. 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목과 허리가 아팠다.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고대하던 성령집회는 아웃리치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에 열렸다. 성령집회에서 찬양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동안 미지근했던 믿음과 주님께 거리를 뒀던 것을 회개했다. 기도시간에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영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 곡성 아웃리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공동체식구들과 연합해서 섬기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느낀 뜻 깊은 아웃리치였다. 아웃리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온누리영어예배·영등포구로공동체_필리핀

여호수아공동체_캐나다 밴쿠버섬

주께서 예비하신 때가 차면



아웃리치팀은 필리핀에서 일주일간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했다.

권저스티나 성도
(영어예배)

비율빈(比律賓)이라는 나라를 아는가. 한국이 놀라운 경제발전으로 거듭나기 전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를 아는가. 그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다. 온누리영어예

배(OEM)와 영등포구로공동체 소속 지체 17명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필리핀 케손시 빈민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필리핀 현지인과 필리핀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벗교회’ (담임목사 정광훈)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지인에게는 영어로,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한 번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필리핀에 가는 것이 덜컥 겁이 났다. 멕시코, 일본, 러시아 등지로 선교를 가봤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러 아웃리치를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도 일대일 제자양육에 긴 시간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든든했다. 기도와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리더십들도 있었다. 우리 팀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영적 공격과 개인적 이기심을 기도로 이길 수 있었다. 우리는 더욱 연합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늦은 밤 도착한 필리핀 마닐라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50~60년대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후퇴되고, 오랜 역사 안에 갇힌 것 같은 필리핀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항상 선교지에 오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 마음에 크게 울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우리는 필리피노 동반자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고 희망을 품었다. 우리는 16주 동안 이어지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일주일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역시 일대일 제자양육의 힘은 놀라웠다. 필리피노 동반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접하고 무척 기뻐했다. 새로운 필리핀을 꿈꾸는 듯 했다. 특히 큐티시간은 모두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성경 읽기를 어려워 하셨던 분들도 모두 큐티를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마른땅에 내리는 빗물처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큐티를 통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아가 필리핀이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믿음과 교제의 씨앗이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일에 순종하고자 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리피노 형제자매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게 하셨다. 필리피노 형제자매들은 날마다 오롯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필리피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새 생명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대나무는 수년 동안 땅 속에서 대나무순만 준비한다고 한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하루에 약 90cm~1m씩 자란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아웃리치를 하면서 그 대나무가 생각났다. 지금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필리피노 형제자매들이 많지 않아서 그 영향력이 마치 땅에 묻힌 대나무순 같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때가 차면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 필리핀에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 한 가지 소원



한복을 체험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

구혜현 성도
(여호수아공동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7박8일 동안(7월 15일~22일)의 캐나다 아웃리치는 만남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마음으로 그리던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모든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실제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마약과 알코올중독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만큼 절망이 깊다. 기숙학교 강제수용, 백인가정 강제위탁 같은 아픈 역사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옥아매고 있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짐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캐나다 밴쿠버섬에 위치한 슬라이아몬(Sliammon)에서의 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단순히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세요”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그 사랑이라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원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서울에서 슬라이아몬까지 만만치 않은 이동 거리였다. 비행기, 배, 자동차 등 웬만한 교통수단이 모두 동원되었다. 지칠법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팀원들의 눈빛이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다. 사실, 출발 전날 한 소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동체 중심의 부족문화를 가진 원주민 마을에서는 한 가정에 장례가 있을 경우 마을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더라도 애도 기간과 맞물려 사역과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녀의 할머니인 도린 할

머니의 결단 때문이었다. 손녀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흔쾌히 받아주신 것이었다. 우리는 현지시각으로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착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마을 체육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모여 “저 문 너머 천국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밴쿠버섬 슬라이아몬에서의 사역은 ‘코리아 페스티벌(Korea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오전과 오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키즈 앤 티스 클럽(Kids & Teens Club)’을, 저녁에는 ‘코리아 나이트(Korean Night)’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사역 첫날에는 전통 공예, 민속놀이, 음식 만들기,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코리아 아트 앤 컬처(Korean Art & Culture)’를 열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고 즐겼다. 태극무늬 목걸이에 열심히 색칠하던 한 주민은 “여기는 마치 힐링테라피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선교사님의 기도를 따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비록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소망이 없는 땅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

“덕분에 기쁨이 없던 우리 마을에 웃음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들은 슬라이아몬 주민들의 소감이었다. 감사할 일이 또 있었다. 집회에 참석했던 캐나다 원주민 엄마와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난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Bridge33+공동체 동경

아름답게 엮어주신 하나님



일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Bridge33+공동체 성도들.

이주화 성도
(Bridge33+)

일정이었다.

이번 아웃리치 사전 준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관공서는 종교 단체행사를 홍보해주지 않는데 교회 캠프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게 허락해줬다. 그 덕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도 교회 캠프에 신청했다.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찬양 'Flesh'가 후지미가오카교회 목사님인 지로 목사님의 친구가 만든 곡이자 결혼식 축가로 불렀던 곡이라고 했다. 지로 목사님은 홍보물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지미가오카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몇몇 성도들은 작년에 왔던 지체들을 알아보고 찾아와 인사했다. 정말 감사했다.

첫 사역인 찬양워크샵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작년에 이어 하는 사역이라 부족한 언어에도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다. 모두 함께 찬양을 부르며 위임을 함께했다. 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갔다. 찬양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팀은 한국음식을 선보였다. 한국식 바비큐와 부침개, 궁중떡볶이, 잡채, 화채 등을 준비했다. 일본 성도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웃리치팀 모두가 뿌듯했

다. 준비된 캠프 일정이 끝나고 헤어질 때 후지미가오카교회 성도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셨다.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후지미가오카교회를 떠나 동경대학에 갔다.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속한 조는 기도하며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팔찌를 건넸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팔찌를 받지 않고 그냥 가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복음팔찌를 전했다. 학생들이 하나 같이 밝은 표정으로 전도팔찌를 받았다. 전도팔찌를 받은 학생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웃리치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했다. 멘토님들의 솔선수범 섬김이 빛난 아웃리치이기도 했다.

내가 처음 아웃리치를 갔을 때 누군가 "아웃리치는 삼 년을 같은 곳을 가야 그들의 영혼 속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도 동경 아웃리치에 참석할 것이다. 일본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Bridge33+공동체와 후지미가오카 교회를 아름답게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동작공동체 전남 영광

하나님만 생각하며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류정민 학생
(동작공동체)

아빠에게 올해 국내 아웃리치는 작년과 같이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교회'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년 아웃리치가 유독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아웃리치 약 한 달 전부터 매주 기도모임(준비모임)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 주 기도모임에 참석했다.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맛있는 간식도 나눠먹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아웃리치에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이 한 달 동안 외국에 가야 하는 일정과 아웃리치 일정이 겹쳤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하루 늦게 아웃리치를 가려 했다. 그런데 기도모임을 마치고 나서 아빠와 함께 하루 일찍 아웃리치 선발대로 가고 싶어졌다. 다행히 선발대 차량에 자리가 있었다. 나는 아빠와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하루 먼저 출발했다. 작년에 이어 다시 가마미교회로 간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도착해서 기도하고 방송장비 등을 옮기면서 다음날부터 있을 예배를 준비했다. 가마미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일 년 만에 뵈었는데 나를 기억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동작공동체 가족들이 오셨다. 도착예배를 드리고 페인트팀, 전도팀, 예배팀(찬양팀)으로 나뉘어 사역을 시작하였다. 페인트팀은 교회와 마을 담벼락을 정말 멋지게 칠했다. 나중에 보니 마을 전체가 전과 다르게 너무 환해져서 보는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페인트팀 식구들의 수고가 정말 많았을 것 같다.

전도팀은 경로당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께 발마사지, 머리 염색, 커트, 얼

굴 팩 등을 해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집회에도 초청하였다. 예배팀은 찬양과 음향 등을 점검하고 전도집회와 특순을 준비하였다. 나는 아빠와 함께 예배팀을 섬겼다. 가마미교회 식구들, 동네 주민들 인터뷰 촬영과 편집도 도왔다. 특순무대 지원도 하라고 하셔서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금방 괜찮아졌다.

이틀 동안 진행된 두 번의 맞춤형전도집회에서 국악공연과 영화 설교를 했다. 경로당에서 뵈고 초대했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했다. 거문고, 가야금, 대금 연주와 함께 판소리 공연도 하였다.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공연을 즐기셨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멋진 공연이었다. 공연 도중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를 도와 마이크를 잘 교체해서 칭찬을 들었다.

둘째 날 마지막 전도집회를 마치고 가마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안아드리고 나눠주신 기도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여러모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분들을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동체 사역과 아웃리치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역하고 싶다.



남양주 온누리교회_춘천소년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춘천소년원 학생들이 성경인물에 대해 나누고 세례도 받았다.

김형구 성도
(남양주 온누리교회)

부담이 컸던 것일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힘 빼기였을까?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캠프와 아웃리치를 경험했지만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성년자라해도 범법자들인 아이들에게 2박3일 동안의 여름성경학교가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올 3월부터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했다. 두 달 전부터는 매주 주일 기도모임을 진행했고,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저녁에도 기도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빨리 수문을 열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이 가득 채워진 댐처럼 준비되어 갔다.

드디어 여름성경학교가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사역팀과 B공동체까지 합해서 20여 명이 넘는 주의 군사들이 춘천소년원에 도착했다. 5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만나왔지만 막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기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모두 일당백 용사처럼 결연했다. 소강당에 입실하자마자 팀별로 나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찬양팀, 데코팀, 정리 및 셋팅팀 등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번 주제 표어도 멋지게 걸었다. 아이들에게 천국잔치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썼다. 시작 20분 전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소년원 사역 담당이신 지대근 목사님의 인도로 뜨겁게 기도회를 했다. 톱스타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레드카펫처럼 우리는 기도의 레드카펫을 펴고 성경님들을 초대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서 시작과 끝은 항상 경배와 찬양팀이 맡아 주었다. 날마다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찬양소리와 박수소리가 우렁찼다. 지대근 목사님의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말

씀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스토리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성경스토리를 조별 선생님이 이어받았다. 12명의 성경인물들을 아이들과 함께 탐구하고 질문하고 추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큰 도화지에 성경스토리를 창의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발표도 했다. 아이들의 발표는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은혜 그 자체였다.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과 자신을 돌아보는 편지 쓰기 시간도 있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 조를 맡아주는 고마운 선생님, 미래의 나에게 등 다양했다. 많은 아이들이 반성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썼다. 막상 발표할 때 아이들이 쑥스러워 했지만 그들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피날레는 세례식이었다. 진지하고 진중한 시간이 이어졌다. 세례교육이 끝나자 총 68명 중에서 38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을 것을 결단했다. 손을 들어 약속한 38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그야말로 감동을 뛰어넘어 기적이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2박3일 동안의 사역을 마친 스태프들은 마치 천국을 맞본 사람들처럼 행복했다. 모두 들떠있었다. 정말 어떤 사역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박찬 감동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렸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는 다시 춘천소년원에 복음을 들고 간다. 춘천소년원에 있는 또 어떤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보혈의 십자가를 쫓기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다.



양재 예수제자학교(JDS) 저녁반 간사_베트남

‘쉽 그리고...’



양재 JDS 저녁반 간사들이 베트남 교인들과 교제했다.

이승근 간사
(양재 JDS 저녁반)

올해 2월경, 아웃리치에 부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쉽’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경상북도 포항이 유력했다.

시간이 흘러 본부에서 예수제자학교(JDS) 간사들은 해외 아웃리치를 가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양재 예수제자학교 저녁반 간사 아웃리치는 베트남으로 정해졌다. 그 소식을 접한 나는 너무 좋았다. 베트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재욱 목사님을 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설레는 마음을 알아채신 황순규 총무님께서 베트남 아웃리치 팀장을 제안 하셨다. 20초쯤 고민하다 순종했다.

베트남 아웃리치 일정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5일로 정해졌다. 31명이 함께했다. 아웃리치는 ‘쉽 그리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의 사역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무이네교회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이사역과 의료사역을 실시했다. 어린이사역은 장서영 간사님이, 의료사역은 김교용 간사님이 맡았다.

7월 27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더니 오전 8시 27분이었다.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사역을 시작했다. 어린이사역에서는 예배, 물총놀이, 비눗방울놀이, 어린이방 꾸미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의료사역에서는 정형외과, 내과, 약국을 열었다.

아웃리치팀원 모두가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동역이었다. 상의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날씨가 무더웠지만 끝까지 집중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도 감사했다. 베트남 아웃리치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 해주신 예수제자학교 간사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 싶다.

현지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린이들의 눈을 보니까 동참하고 싶는데 주저하고 있는 눈치였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들이 30% 정도가 부모님이 없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사역이 진행되고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신나게 놀면서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와 어우러졌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서 “이곳이 천국”이라는 울림이 있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무이네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명숙 간사님이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만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가 기도하고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번 베트남 아웃리치는 나와 양재 예수제자학교 저녁반 14기 간사님들이 주 안에서 쉽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7월 29일 주일에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몇 분의 간사님들은 특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예배 후에는 식사교제를 하고 시나투어도 했다.

베트남 아웃리치가 별 탈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 정재욱 목사님과 이정국, 김영애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양재 사랑부 캠프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양재 사랑부 교사와 학생이 여름캠프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했다.



연일 교사
(양재 사랑부)

양재 사랑부 교사와 학생 75명이 2박3일 동안(8월 4-6일) 경기도 가평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한 달 전부터 주기도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말씀 쓰기과 릴레이 기도로 여름캠프를 준비했다. 나는 공통 기도제목과 더불어 기도했던 것이 있다. 간증이 있는 여름캠프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캠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결과일까? 풍성한 간증이 있는 여름캠프였다. 매 순간이 간증이고 은혜였다.

여름캠프 둘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장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모두 젖고 말았다. 캠프파이어장 주변에도 물이 고여 캠프파이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보관하고 있던 장작도 모두 젖은 상태여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캠프파이어는 이번 여름캠프의 피날레였다. 이번 여름캠프에서 나는 주제와 구호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던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코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다. 코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캠프파이어를 허락하시면 비가 오고 장작이 젖어도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기도해 보자고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장작이 다 젖었는데 무슨 수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코치님과 나의 대화와 내 마음을 들으시고 읽으셨던 것 같다. 여름캠프 내내 식사를 거의 하지 않던 유아부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운동 삼아 산책을 하면 밥을 먹지 않을까 싶어 담당선생님이 데리고 나갔다. 그 선생님과 아이가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비닐에 싸인 장작더미를 발견했다. 그 덕분에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유아부

친구와 담당선생님의 발걸음을 장작더미로 인도해 주셨다. 나는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간증은 더 드라마틱하다. 캠프파이어장에 입장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뉘어 대기하고 있었다. 대학청년부 한 친구가 대기하던 중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 청년의 한쪽 눈은 의안이었는데 갑자기 빠더니 단풍나무 정원에 던져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밤이라 주위가 매우 어두웠다. 단풍나무는 직경이 5미터가 넘었고 나무 밑에는 철쭉나무가 뻗뻗이 심겨 있었다. 일부 선생님들은 캠프파이어 중에도 의안을 찾았다.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나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의안을 찾았는데 밤 10시가 넘도록 찾지 못했다. 이번 여름캠프 구호인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구호를 간절하고 절실하게 외쳤다.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구호와 기도를 하면서 의안을 찾았다. 나는 그 청년의 의안을 찾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이 느껴졌다.

밤 10시 30분 즈음 “이제는 힘들겠다.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선생님께서 “찾았다!”라고 외치며 그 청년을 일싸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담당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의안을 찾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캠프 구호였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게 하셨다. 이번 여름캠프에서 배운 기도를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양재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010-9546-7773

강동_일본 요코하마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다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도지와 선물을 일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조은미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는 언제나 감동과 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요코하마 아웃리치를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나의 신앙생활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시금 주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은규 목사님과 23명의 지체들이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이번 요코하마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임을 재확인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지낸 호텔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었다. 일본에 도착해서 집을 쫓아 다음 곧장 교회로 향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놓으셨다. 전에 서현 목사님께서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다. 나는 그때 들었던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을 다시 만나 뵈게 되니 너무 반가웠다. 우리는 서현 목사님으로부터 일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서현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셨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한국인과 일본인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대만인도 몇 분 계셨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서현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이나 선교하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숙적인 일본에서

목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지 짐작이 갔다.

서현 목사님은 개인적인 기도제목도 나눠 주셨다. 10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입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다. 양부모 자격 심사를 위한 재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그 다음 날 새벽예배에 참석했다. 요코하마 성도들과 새벽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다. 조식 후에는 오은규 목사님이 ‘관계를 위한 소통방법’을 주제로 강의하셨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워크숍을 통해 일본 성도들과 교제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노방전도에서 나눠 줄 선물도 포장했다. 남자 성도들은 요코하마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했다. 그 시간 여자 성도들은 노숙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천사의 손’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반찬은 집에서 만들어 오고 밥은 교회에서 짓는다. 그렇게 노숙자 50여 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팀원들과 나눔 시간을 가졌다.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기도제목도 나눴다.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지체들과도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갔다. 나눔 시간을 통해서 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다. 서로를 향한 격려가 우리 팀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함께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아웃리치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영등포공원 노숙자들에게 삼계탕 대접

양재 이웃사랑팀과 새가족사역팀 연합 사역

피약별이 작렬하던 지난 8월 11일 영등포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양재 이웃사랑팀과 새가족사역팀이 연합해서 영등포공원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한 것.

양재 이웃사랑팀과 새가족사역팀은 영등포공원 일대 노숙자들 180명에게 손수 준비한 삼계탕과 간식을 나눠줬다. 당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눠 주기로 했지만 소문을 듣고 일찍부터 모여든 노숙자들로 인해 오전 11시 30분 경 삼계탕이 동남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최환준 집사(양재 이웃사랑팀)는 “노숙자들이 위험하고 무섭고 더럽다는 생각을 거두고 양재 이웃사랑팀과 함께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창국



영등포공원 노숙자들이 양재 이웃사랑팀과 새가족사역팀이 대접한 삼계탕을 먹고 있다.

집사(양재 새가족사역팀)는 “노숙자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웃사랑팀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연합해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약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의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고민도 들어주시고, 중보기도

도 해주시고, 악기 연주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과 교회들이 노숙자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 등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정신적인 지

원입니다.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노숙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박선남 성도(마태교회, 노숙자)

“영적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교도관이 들려주는 교도소사역’ 특강

9월 6일 서빙고 비전홀

서빙고 새사람사역팀(사회선교)에서 9월 6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1일 특강을 실시한다. 주제는 ‘교도관이 들려주는 교도소사역’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주의사항(보안교육), 크리스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강사는 여주 소망교도소 김무엘 과장이다. 교도소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3625-0266

두란노, QT 베이직 세미나 개최

두란노서원에서 ‘QT베이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8월 27일 두란노서원 본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삶> 9월호와 필기구, 성경책을 지참해야 한다. 9월 8일에는 전주 샘물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duranno.com/semina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078-3252

“그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경기A공동체 보은 아웃리치 은혜 풍성

경기A공동체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충북 보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경기A공동체는 차세대 캠프, 11개 지역교회 섬김, 베트남 이주민들을 위한 맘스카페 운영, 베트남어에 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드린 베트남어예배에서는 예금란(38세), 레티참(30세) 자매가 세례를 받았다.

예금란 자매는 “예수님 믿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레티참 자매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는 경기A공동체 성도들과 회남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김영수 목사(회남교회)는 “경기A공동체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베트남에서 온 자매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다”며 감격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이주민 34명 세례

몽골, 캄보디아, 이란, 네팔,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온 이주민 34명(성인 29명, 유아 5명)이 지난 12일 안산M센터 연합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다. 연합세례식은 안산M센터 온누리홀과 야외에서 진행됐다.

세례자들은 대부분 이주민 근로자들로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품분리 성도(캄보디아공동체)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2018 임직자스쿨 개강

9월 1일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

2018 임직자스쿨이 9월 1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강한다. 이번 임직자스쿨은 11월 10일까지 서빙고 화요일, 양재 토요일이 운영된다. 서빙고 화요일은 9월 4일부터 오후 8시 비전홀, 양재 토요일은 9월 8일부터 오전 10시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대전과 양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행복한 가정과 리더’, ‘세계를 품은 리더’, ‘안수 집사(권사)의 모델’, ‘일터 영성’, ‘부르심과 헌신’, ‘CGNTV’,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복지재단’, ‘사회선교’,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려면 개인영성훈련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10월 14일까지 신약성경통독, 새벽기도 20일 참석(인터넷 참석 안 됨), 독서보고서, 큐티 말씀묵상, 봉사활동 등을 완료해야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1, 양재 02-570-7438

182기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개강

9월 8일 오후 3시 서빙고 비전홀

부부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182기가 9월 8일(토)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강한다. 8주 동안 진행되는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는 부부관계 측정, 가족 결합 측정, 이상적인 가정관 작성, 1일 수련회(9월 29일, 과천 로고스센터), 배우자 바로 알기, 부부관계 개선 Tool(1,2,3) 소개 및 활용, 성경적 가정관 및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5만 원이다. 정서적 친밀감을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9041-5538

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전도폭발, 온누리전도학교, 맞춤형전도세미나 개강

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전도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강한다. 전도폭발, 온누리전도학교, 맞춤형전도세미나가 그것이다.

서빙고 전도폭발 27기는 9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주간반(오전 10시)과 저녁반(오후 7시 20분)이 운영된다.

양재 전도폭발 25기는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40분부터 4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202호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8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주일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19기는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10기는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강의동 305호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4만 원, 접수는 아이스쿨.

맞춤전도세미나는 9월 17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맞춤형전도의 원리,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 4만 원. 온누리 교인은 2만 원.

문의: 서빙고 전도폭발 주간(010-2850-1021)

야간(010-6685-0812)

양재 전도폭발(010-8711-2831)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010-3226-4364)

양재 온누리전도학교(010-2414-4820)

맞춤전도세미나(02-2078-3456)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십시오 2

하고 분별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형성된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로잡힌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란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 너무 두텁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세계관은 깨지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인간의 언어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강력한 역사만이 세계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헛된 세계관은 낙후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도 헛된 세계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작게는 부족, 한 가정, 한 개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세계관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계관을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분열(Division)과 낙심(Discouragement)

넷째, 분열(Division)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동료선교사와의 관계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질병이 아니라 동료선교사와의 관계가 선교지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또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불가피한 분열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분명히 분열됩니다. 거짓된 하나됨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흠이 있었다면 리더들의 분열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이름을 거명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열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할 때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막았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만나면 영적인 부흥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낙심(Discouragement)입니다. 이 시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근심의 모든 목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늘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반성이 지나쳐서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노립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을 팔았다고 거짓말 하고 속임으로써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영적 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나바와 비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믿음생활의 비교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탄이 틈타게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완강한 거부로 부딪혀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9).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낙망합니다. 낙심시키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사 40:31).

참된 그리스도인은 침체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권리만 있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 낙심케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속이는 것, 헛된 세계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거짓된 욕망으로 과도한 욕망을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계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맞서 대적하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박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6



박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중국의 황제(皇帝)는 폐하(陛下)로 불리었다. 암살위험과 황실의 위엄 때문에 높이 쌓아 올려 만든 웅장한 대궐의 섬돌(陛: 섬돌 폐) 아래에 황제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은 전하(殿下)이다.

그 역시 경복궁 근정전 전각(殿閣) 아래에서나 간신히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당시 대통령은 누각(樓閣)에서 여흥을 자주 즐겼는지 각하(閣下)라는 호칭을 선호했다. 장군(將軍) 아래 있는 종병들은 대장의 깃발(麾: 깃발 휘)이 꽂혀 있는 본영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기에 장군의 휘하(麾下)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무릎(膝: 무릎 슬) 아래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부모의 슬하(膝下)에서 사랑으로 양육되었다. 그래서 무엇(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율곡집(栗谷集)에는 벗 우계 성훈에게 쓴 편지글도 있다. “호원족하(浩原足下), 전 일에 보내준 글을 받았는데...” 호원이란 율곡의 절친했던 벗 우계 성훈의 자(字)이다. 자는 상대방

을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인데 율곡은 우계를 호원이라 부르고 우계는 율곡을 숙헌(叔獻)이라 불렀다. 족하(足下)는 동년배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를 때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어다.

중국 춘추시대 진문공(晉文公)이 간신에 휘둘리자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면산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나중에 진문공이 그를 산에서 나오게 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버드나무를 끌어안고 타죽은 개자추를 발견한다.

“슬프다. 족하야(悲乎足下).”

그 버드나무로 나막신을 만들어 신고 탄식한 진문공은 개자추가 생각날 때마다 나막신을 굽어보며 자신의 인물됨이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했다고 전해지는데 후에 이 ‘족하(足下)’란 말이 경칭(敬稱)으로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형제자매의 자녀를 일컫는 ‘조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품위 있는 말로 자녀나 다음 없는 가까운 혈육의 존칭(尊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이 단어의 의미가 ‘발아래’라는 뜻이니 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나 진배없는 조카가 한 명 있었다. 형님 하란(Haran)이 남기고 간 외동아들 롯(Lot)이다. 롯은 삼촌인 아브람(Abram), 할아버지 데라(Terah)와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나긴 여행을 떠났다.

혹시 성경에 로또(lotto) 복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가? 창세기 12장 4절을 발음 되는데로 크게 읽어보자.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로또]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과연 아브람과 함께 간 이 조카가 로또 복권이였을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삼촌과 함께 가나안 이주에 성공한 롯은 나중에 가족이 너무 많아져서 삼촌과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말 로또 인생인 듯 보였다. 롯은 삼촌과 헤어져 초장이 넉넉하고 비옥한 사해 연안 도시 소돔 근처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전쟁 와중에 포로가 되었고, 삼촌 아브람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롯의 인생 하이라이트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였다. 도시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유허불 심판 속에서 믿음이 없고 우유부단한 아내를 잃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등 롯은 희비(喜悲)의 쌍곡선을 그리는 롤러코스터 인생이었다. 롯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악 된 세상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영적인 반면교사(反面教師)였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

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정확한 거울이며, 신기루 같은 로또 행복을 좇으며 사는 인생의 최후가 비탄(悲嘆)임을 미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다. 조카 롯은 아브람에게 더 이상 로또가 아니었다. 75세에 부름 받은 아브람은 사실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비웃음으로 일관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은 100세가 되서야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믿음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이삭은 ‘웃음’이라는 뜻). 이삭은 99세까지 아브람(Abram, 높은 아버지)으로 살던 인생을 아브라함(Abraham, 열국의 아버지)이라는 인생으로 시작케 한 믿음의 분기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가 족하(足下)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심분 동의할 것이다. 조카 롯을 통해 아브라함은 누군가의 ‘발아래(足下)’에 납작 엎드릴 때 진짜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았다. ‘인생 한 방’이니, ‘대박 인생’이니 하는 허탄한 로또 신화에 뜻을 두지 않고 전능하신 분의 ‘발아래(足下)’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의 인생뿐이라. 모든 만물은 마땅히 그 발아래에 엎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의 입술엔 어찌 자족(自足)하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으랴.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정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6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눔동선(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꿈아이를이터 가톨릭기 31기 모집

대상: 22~38개월

기간: 9월 5일~11월 28일 매주 수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아이를이터교사 모집

분야: 음향, 세팅, 찬양, 데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두란노 어머니학교 본부 103기 모집

일시: 8월 29일~9월 19일 매주 수

문의: 02-2182-9114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이상, 유치원, 초·중·

고,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영유아보

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관계기술훈련 금요반

일시: 8월 24일~10월 19일 매주 금

문의: 010-9276-9220, 02-3215-3532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1기

일시: 10월 13일~11월 4일(4주 토, 일요일

1박2일)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182기 순창교회 안내

개강: 9월 9일 주일 오후 5:00

문의: 이기범 총무(010-2360-0490)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2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

다음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을 그리는
토크 프로그램

나침반 PLUS

시즌3  소망

8월 26일 (주일) 첫 방송

방송시간 :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진행 최윤영 출연 나도움 목사, 명성진 목사, 박현동 목사
이성재 목사, 이요셉 목사, 전용제 목사